

## 축산·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박근효  
두산생물자원(주)  
대표이사

우리나라 축산은 60~70년대 태동기를 지나 80~90년대는 급성장기를 보냈으며, 2000년대 부터는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축산이 결코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성장의 폭이 적을 뿐이다.

우리나라 축산의 역사는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연력으로 본다면 모든 것에 미혹(迷惑)되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를 지나고 인생의 의미와 하늘의 뜻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지천명에 걸맞을까? 한번쯤 되돌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 사료산업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였으며, 새로운 원료 개발 및 사료가공 기술의 변화로 사료산업과 축산업이 동반하여 발전을 해오므로 축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 하였다. 사료 산업은 지금까지 국내 축산업계는 국제 경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이제는 국제 경제 질서가 자유 무

역체제로 전환 하는데 따른 생존을 위한 대책 및 전략을 구상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촌경제에서의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국내 축산업은 경영의 선진화와 대형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세한 축산 농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형 업체 중 자체 사육, 가공이 가능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자가 사육으로 유통을 통한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과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국산 제품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의 수익 동향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축 가격과 사료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원재료인 배합사료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 옥수수 가격 및 수입원료에 의한 변동 폭이 큰 편으로 축산업계의 통제력은 취약 한 편이다. 또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소비 위축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 원가율은 저 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상 85% 수준을 상회 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한 상

황이다.

축산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극대화 하여 글로벌화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축산업계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축산 생산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 식품의 브랜드 사업 활성화, HACCP 시스템 도입, 축산업 등록제, 무항생제 및 유기 축산물 기준 마련, 약취 방지법 도입 등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큰 변화를 실시 하였다.

2007년 축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중요시 되어 상위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축산 업체들은 경우 수익성이 더욱 악화 되어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는 시장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축산업계의 이슈는 수입 축산물의 급증과 산지가격의 불안정이다. 환율과 곡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사료가격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료 첨가제 및 항생제 사용의 규제 강화로 가축 질병과의 지속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또한 국제 수준에 맞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식품 안정성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의 도전 과제는 안전한 축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및 유기 축산,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웰빙 트렌드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하여야 한다.

사료의 안정성 확보는 축산물의 생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사료는 식품,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사고로 HACCP 인증 및 유지, 친환경적인 제품, 고품질 제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당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개발한 친환경적이고 웰빙 트렌드에 부응하는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신제품 사료를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요즈음이다. 10년 전부터 구제역과 AI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다. 바이러스성 외래 질병에 대한 최선의 방어대책은 뭐니뭐니해도 예방이 최선이다. 국제화 시대에는 외래질병유입 차단에 특별한 관심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 공항과 항만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질병 방어 및 면역 증강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획기적인 가축 분뇨 처리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콜레라,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이슈화 되면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사전 대책이 요구된다.

축산 농가의 항생제 보다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 함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의 규모화로 분뇨처

리는 환경을 오염 시키는 것으로 인식 된 만큼 환경 친화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식을 가지고 축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로 실행하는 우수 축산 지도자를 확보 하고 양성하여 윤리 경영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축산업의 전망은 국내 1인당 육류 및 우유 소비량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현재 웰빙 트렌드로 육류 소비량은 제한적 이어서 국내 축산물 소비는 큰 폭의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축산물의 비중은 더욱 확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한미 FTA가 체결 됨에 따른 관세 폐지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이로 인한 사료업계 또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된다.

축산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축산 농가수의 감소는 사료업계의 과열 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정체 속에서 업체간 과도한 가격 경쟁 보다는 대체 원료의 개발 및 신기술 개발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 해야 한다.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축산업을 주도 해온 사료산업의 발전 방향은 선진국에 대하여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물 고급화와 지속적인 대체 원료 개발로 생산비 절감을 해야 하며, 사양관리 기술 개발과 토탈 마케팅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 하여 축산업과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축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서비스 혁신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고객 중심적인 경영으로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